

[ 사회 ]

# 서울대 합격자 광주·전남 210명

## ■2008학년도 분석

### 수도권 출신 58%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자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출신 139명, 전남 출신 71명, 전북 출신 10명 등이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수도권 출신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대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8%에 달했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출신자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약진=16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통계'에 따르면 광주 출신은 139명으로 전체 3천289명의 4.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출신 58만4천934명 중 광주 출신(1만8천317명) 비율 3.1% 보다 1.35배 높은 수치다. 인구 수가 비싼 대전은 124명이 합격해 3.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 합격자 수가 1천273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

## ■2008 서울대 합격자 지역별 통계

| 지역 | 합격자(명) | 비율(%) |
|----|--------|-------|
| 서울 | 1,273  | 38.7  |
| 경기 | 489    | 14.9  |
| 부산 | 225    | 6.8   |
| 대구 | 183    | 5.6   |
| 인천 | 147    | 4.5   |
| 광주 | 139    | 4.2   |
| 경남 | 128    | 3.9   |
| 대전 | 124    | 3.8   |
| 전북 | 113    | 3.4   |
| 경북 | 88     | 2.7   |
| 충남 | 82     | 2.5   |
| 전남 | 71     | 2.2   |
| 강원 | 66     | 2.0   |
| 충북 | 65     | 2.0   |
| 울산 | 56     | 1.7   |
| 제주 | 40     | 1.2   |
| 합계 | 3,289  | 100   |

해 수도권 출신 비율 26.6%보다 1.35배 높았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대 합격자 수가 489명으로 14.9%였지만, 응시자 비율이 22.1%였다. 전남 역시 서울대 합격자 수는 71명으로 2.2%인데 비해 응시자 비율이 2.7%로 다소 높았다.

◇광주 39곳, 전남 37곳=광주에서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고등학교는

모두 39곳이다. 이 중 특목고인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는 38곳으로 전체 45곳 중 7곳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곳은 광주과학고와 금호고로 각각 10명이었다.

전남에서는 목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 12명 ▲순천 10명 ▲광양 7명 ▲여수 5명 순이었다. 22개 시·군 중 서울대 합격자를 내지 못한 곳은 7개 시·군이었다.

◇수도권 쏠림 여전=서울대 합격자 3천289명 중 58%인 1천909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고교 출신자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천273명, 경기 489명, 인천 147명 등이었다. 상위 10곳에는 전주상산고(32명)와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24명)를 제외하곤 모두 수도권 지역 학교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서울에 고교 87명에 달했으며 그 뒤를 ▲대전외고 71명 ▲서울과학고 68명 ▲명덕외고 34명 ▲한성과학고·전주상산고 32명 등이었다.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는 각각 10명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편향 항의 삼보일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4개 불교 단체는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원각사까지 약 1km 구간을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위경림기자 jrwi@

## 계속되는 늦더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구분 | 조기     | 최고     | 최저     |
|----|--------|--------|--------|
| 광주 | 20~31℃ | 20~29℃ | 22~27℃ |
| 전남 | 19~30℃ | 18~31℃ | 17~30℃ |
| 전북 | 18~31℃ | 17~30℃ | 18~29℃ |
| 충남 | 18~31℃ | 18~29℃ | 18~31℃ |
| 충북 | 18~31℃ | 18~30℃ | 19~31℃ |
| 강원 | 16~31℃ | 16~31℃ | 21~26℃ |

## 9월 17일 (음 8월 18일)

◇전국날씨

| 지역 | 날씨 |
|----|----|
| 서울 | 맑음 |
| 부산 | 맑음 |
| 대구 | 맑음 |
| 광주 | 맑음 |
| 전남 | 맑음 |
| 전북 | 맑음 |
| 충남 | 맑음 |
| 충북 | 맑음 |
| 강원 | 맑음 |
| 제주 | 맑음 |

▲해돋이 06:17 ▲해질 18:37 ▲달뜨기 19:22 ▲달짐 08:0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3:09 썰물 < 08:22  
여수 밀물 < 10:09 썰물 < 03:48

| 날짜    | 18(목) | 19(금) | 20(토) | 21(일) | 22(월) | 23(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21/29 | 20/31 | 20/31 | 20/29 | 21/29 | 20/29 |

## 광주·목포 교도소 6년간 수용자 11명 사망

### 지살·지병으로

최근 6년간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11명이 자살과 지병으로 숨지고, 수용자 간 폭행사건 등 364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많은 교정시설일수록 수용자들의 인권위원회 제소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교도소도 138건의 폭행사건을 포함해 총 152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해 전국 교정시설 중 9번째를 차지했다.

민중당 박지현(목포)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석한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 말 현재 ▲광주교도소 3명 ▲목포교도소 2명 ▲순천교도소에서 1명이 스스

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병으로 숨진 수용자는 광주와 목포교도소 각각 3명, 순천교도소 1명이었다.

또 이 기간 중 광주교도소에서는 170건의 폭행사건 등 모두 212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해 전국 47개 교정시설 가운데 서울(241건), 대구(221건), 인양(213건)에 이어 4번째로 가장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목포교도소도 138건의 폭행사건을 포함해 총 152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해 전국 교정시설 중 9번째를 차지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은 2004년 이후 7월 말까지 광주교도소가 1천487건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4번째로 많았으며, 목포교도소는 817건으로 9번째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방위 압박 전교조 돌파구 찾기 고심

정부가 교육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임원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가입 수 공과 등 최근 정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내놓고 있는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추진하

고 있는 교원단체 가입 현황 공개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전교조는 우선 교과부의 압박 배경을 분석하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근거로 시행령 자체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교육정보공개법 문제 뿐 아니라 교원평가제,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학교선택권, 단체협약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점을 감안해 각 부분별로 대응책을 찾기보다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또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듯 각 분회 차원의 '참교육 보고대회'를 전개해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필기자 camus@연협스

## 전남공고, 기업 계승자 특별전형 선발

광주지역 전문계 고교인 전남공업고교가 기업(家業) 계승을 희망하는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기업에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공고는 16일 "오는 10월 13일부터 4일간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제조업 등 기업을 이어받거나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는 '기업계승'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남공고는 전체 모집정원 490명의 10%인 50명 가량을 기업계승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부모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학생 중 사업을 계승할 의지가 있거나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가능하다.

일반 제조업 이외에도 제과나 제빵, 조리 등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계승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초등 - 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시행 / 중등 - 1차(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관심있는 공부는 당비일 뿐입니다!

# 곽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6모집!

개강 9월 5일

http://www.naeyoung.com

### 강좌개설

|       |     |
|-------|-----|
| 교육학   | 곽내영 |
| 유아교육  | 임미선 |
| 전공국어  | 최병해 |
| 국어교육론 | 마운용 |
| 전공수학  | 임대성 |
| 전공생물  | 강치욱 |
| 전공물리  | 김정민 |
| 전공미술  | 김성희 |
| 전공체육  | 김영호 |
| 일반사회  | 김형수 |

**유·초·중등 임용고사의 모든것!**

새롭게 개편된 3단계 시험제도 - 적응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 교원임용문제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 처음시작에서 최종합격까지 전문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 제시
- 등록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 곽내영고사학원은 교원 임용고사만을 전문으로 강의 합니다.

대표: 성동규 (현안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교수

## 해령법률경매

T : 062)225-2665 H.P : 011-605-7777 위치: 법원경찰문 앞

현재 어디서든 만나세요!

인터넷 동영상  
곽내영교육학

애드뷰넷  
www.adview.net  
02)816-1646

| 지역 | 소재지 | 인근  | 토지/건물(㎡) | 감평가   | 최저가   |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228/150  | 1억1천  | 7천 1백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432/236  | 3억 9천 | 2억 9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59/173  | 1억1천  | 8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89/93   | 8천    | 3천 9백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50/141  | 8천    | 5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31/138  | 6천    | 4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91/82   | 8천    | 4천    |

**아이리스 (고급주택 최고전문가 직영사업)**

| 지역 | 소재지 | 소재지 | 면적(㎡)   | 감평가       | 최저가   |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22    | 148       | 1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6/8024 | 8천        | 5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42/833  | 1억        | 1억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22    | 52/41(42) | 2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18    | 34/64     | 9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0/13   | 34/64     | 1억 4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26    | 57/89     | 1억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12    | 72        | 8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22    | 138/1180  | 1억 6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9/18    | 33/64     | 8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0/9    | 80/163    | 1억    |

**나주·장성·담양·화순 팜 전원주택**

| 지역 | 소재지 | 토지/건물(㎡) | 감평가 | 최저가 |
|----|-----|----------|-----|-----|
| 전남 | 곡성  | 698/118  | 5천  | 3천  |
| 전남 | 곡성  | 340/124  | 8천  | 4천  |

**주택/과수원/임야/주유소**

| 지역 | 소재지 | 인근  | 토지/건물(㎡) | 감평가   | 최저가 |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383/856  | 8천    | 4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36/488  | 1억 1천 | 4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347/871  | 7천    | 3천  |

**중장**

| 지역 | 소재지 | 인근  | 토지/건물(㎡)   | 감평가 | 최저가 |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85/492    | 6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881/4742   | 34억 | 17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232/425    | 2억  | 1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8122       | 41억 | 23억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54/88     | 2천  | 1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803/994   | 6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4058/1481  | 6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144/828   | 7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4298/1481  | 6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2007/1483  | 5천  | 2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18885/4105 | 18천 | 9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3157/1654  | 7천  | 3천  |
| 전남 | 곡성  | 곡성읍 | 8832/5455  | 10천 | 5천  |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심터 무등산 문빈정사

#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돌, 동정기를 거치지 않은 묘, 개인이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인공 무덤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 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 본 사람들은 물론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지는 정제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가친 자연환경과 천체지면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불안 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관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_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정경